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투자정보팀] 2013년 5월 7일 화요일

삼성증권Daily

- 증시 퀴즈 풀이
- Daily 주요지표
-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 - 한국은행을 위한 변명
-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 단기 유망종목
- 화광충천 - 심텍
- 기업 실적 발표 일정
- 수급 빅매치 - 대우조선해양/성광벤드
- Research Headline
- Market Indicators
- 증시 캘린더

create with you

삼성증권 SAMSUNG

증시 퀴즈 풀이 : 아이언맨

	1 아 ★	이	디	1 어		2 반	
				른		상	
						5 회	6 동
		2 이 ★	이	제	7 이		치
3 맨 ★					3 불	개	미
4 인	터	플	렉	4 스			
블				파		6 언 ★	5 니
랙		7 돌	팔	이			즈

<당첨자 명단>

wiseman******@gmail.com

jung_**@naver.com

june0***@naver.com

cher***@naver.com

72oj***@naver.com

loves****@naver.com

hayoon11****@gmail.com

stockbestch****@gmail.com

yong***@hanmail.net

ju***@nate.com

재미있는 **'증시 퀴즈 풀이'** 는 격주로 운영됩니다.
★에 해당하는 글자를 조합해 금주의 Key Word를 맞춰주세요.
Key Word를 보내주신 분 중 10분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합니다.

4월 30일 증시퀴즈풀이 당첨자께는 메일을 통해 개별연락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바랍니다.

Daily 주요지표

	지표	최근값	전일대비	1일전 (%)	5일전 (%)	52주 고가	52주 저가
주식	종합주가지수	1,961.48	(4.23)	(0.22)	0.87	2,042.48	1,758.99
	거래량 (백만주)	292.03	(20.51)	(6.56)	4.24	1,209.79	245.57
	거래대금 (십억원)	3,894.60	(331.60)	(7.85)	(4.27)	9,187.63	2,623.90
	KOSDAQ지수	567.13	1.80	0.32	0.31	570.28	446.35
	거래량 (백만주)	450.82	(29.06)	(6.06)	(7.96)	935.68	289.32
	거래대금 (십억원)	2,047.18	(215.74)	(9.53)	(19.14)	3,704.33	1,066.29
채권	국고채 (10년)	2.81	0.07	2.55	0.36	3.80	2.73
	국고채 (3년)	2.56	0.09	3.64	1.59	3.44	2.44
	회사채 (3년 AA-)	2.92	0.09	3.18	1.74	4.11	2.80
	CD (91일)	2.81	0.00	0.00	0.72	3.54	2.78
외환시장*	원/달러	1,094.50	(2.60)	(0.24)	(1.60)	1,185.50	1,054.70
	엔/달러	99.41	0.41	(0.41)	(1.67)	99.96	77.13
	달러/유로	1.31	(0.00)	(0.02)	0.09	1.37	1.20
아시아증시	니케이225 (일본)	13,694.04	(105.31)	(0.76)	(1.08)	13,983.87	8,238.96
	TOPIX (일본)	1,153.28	(5.09)	(0.44)	(0.95)	1,176.36	692.18
	가권 (대만)	8,169.05	34.02	0.42	1.83	8,197.52	6,857.35
	상해종합 (중국)	2,231.17	25.75	1.17	0.58	2,453.73	1,949.46
	심천종합 (중국)	953.98	17.40	1.86	1.08	983.63	724.97
	항셍 (홍콩)	22,915.09	225.13	0.99	1.63	23,944.74	18,056.40
	H주 (홍콩)	11,001.77	155.78	1.44	1.55	12,354.22	8,987.76

참고: 전일 17시 30분 기준

박정우
jw107.park@samsung.com
02 2020 7029

글로벌 멀티에셋 전략
한국은행을 위한 변명

이 글은 시장과 중앙은행과의 소통부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당사의 정책금리 공식전망과는 전혀 무관한 사견임을 전제로 합니다.

정책금리를 둘러 싼 불협화음

중앙은행은 여러 가지 정책도구를 가진다. 그 정책도구를 나타낸 함수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것은 지금은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로 있는 존 테일러 교수가 개발한 테일러 준칙(Taylor rule)이다. 이 테일러 준칙은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로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공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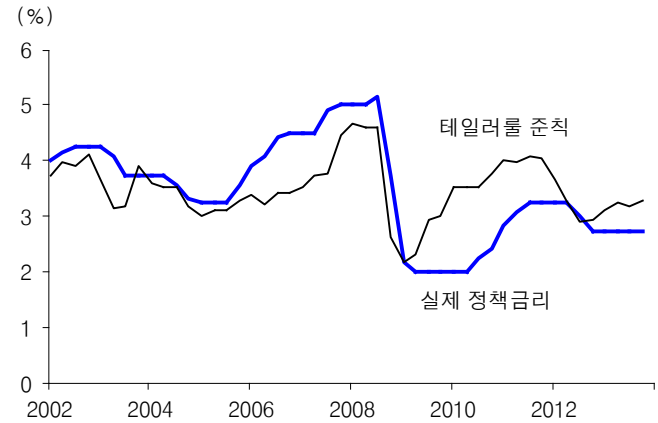
정책금리 = a*(실질성장률−잠재성장률)+b*(기대인플레이션−목표인플레이션)

공식이라고 어려워할 것 없다. 이 공식을 간단히 풀어보면 결국 경기와 물가에 대해 중앙은행이 얼마나 적절하게 비중을 두고 정책금리를 수행해야 하는가를 간단하게 보여준다. 보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자.

공식의 첫 번째 파트에서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게 된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수요압력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정책금리 인상 요인이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는 정책금리 인하요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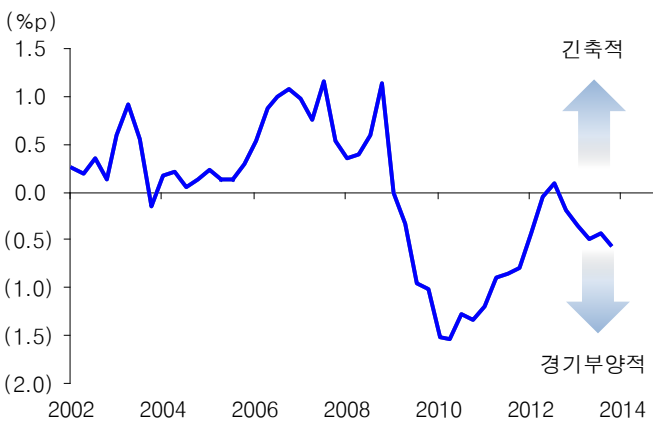
보다 중요한 뒷부분은 물가안정을 목표로 하는 중앙은행이 제시한 목표 인플레이션과 민간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간의 괴리를 나타낸다. 중앙은행의 목표 인플레이션보다 민간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상 압력을 받게 된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 인하 압력을 받게 된다.

그림 1. 한국은행 정책금리와 테일러 준칙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추정

그림 2. 테일러 준칙 대비 한국은행 정책 금리 수준



자료: 한국은행, 삼성증권 수정

위의 (그림1)과 (그림2)는 테일러 준칙에 따라 구한 한국은행의 적정 정책금리 수준이다. 완벽하지 않지만 테일러 준칙에 의거해 한국은행의 현재 정책금리 수준을 본다면, 김중수 총재의 표현대로 지난 3분기 이후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수준은 연말까지 충분히 경기 부양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린스펀을 포함 버냉키, 머빈 킹 영국 중앙은행 전총재 등이 지적하다시피 테일러 준칙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완벽하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현재 테일러 준칙으로 경기부양적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시장과의 소통은 중앙은행 독립성 이전에 공공에 대한 책임

문제는 지금 우리 시장과 한국은행은 한쪽만을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다른 주장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경기의 순환적 반등이 나타나기 때문에, 즉 실질성장률이 3%초나 중반까지도 가능하다고 믿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 민간의 기대인플레이션도 여전히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중기목표치인 3%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금리인하는 필요 없다고 보는 논리이다. 실제, 올해 들어서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9%로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면서 한국은행의 경기전망이 하반기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장의 생각은 다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은 정책금리 인하를 통해 민간에 경기부양에 대한 보다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라는 생각이 강하다. 물론, 이 기저에는 ECB와 BOJ를 포함 많은 중앙은행들이 경기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와중에 우리만 앉아서 당할 수 있느냐라는 격양된 반응도 섞여 있는 것은 사실이다. 통화정책으로 환율을 방어하자라는 논리의 맞고 그름을 떠나 일단 시장에서 널리 퍼져있는 생각이다.

논리는 한국은행이 맞을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논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중앙은행 정책수단의 진화방향이다 (해설 도우미 참조). 현재 차기 Fed의 총재로 거론되는 자넷 옐렌 부총재가 지적했다시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시장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과의 소통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이전에 공공에 대한 책임 (Accountability to the public)** 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행이 깊이 고민해봐야 하는 것도 일방적으로 중앙은행을 몰아붙이는 듯 한 시중의 행태에 대한 분노를 잠시 접고 이 시점에서 시장과 왜 이렇게 많이 엇갈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찬찬히 되돌아보는 것이다.

이번 금통위에서 듣고 싶은 것: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에서는 긴축에 방점을 둔 국가의 경우 주가 상승률이 현저히 낮았다. 한국의 주식시장은 현재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중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계 시장대비 밸류에이션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나라는 모두 정부나 민간의 부채로 인해 긴축을 강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이다. 한국 역시 가계부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긴축의 필요성으로만 따지자면 앞의 나라들 못지 않다. 문제는 우리가 현재 부채축소 국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다. 만약 국내 경제가 민간 부문의 부채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디레버리징 (Deleveraging)국면에 있으며, 그래서 일각에서 우려하듯이 장기 디플레이션 국

면으로 가는 초입 단계라고 한다면 한국은행이 주장하듯이 정책조합을 통한 경기부양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이렇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의 입장이 결코 금리인하 압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가계의 디레버리징 국면에서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지난 20년간 일본과 최근 금융위기 국면에서 명확해졌다. 그것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중앙은행이 아니라 최종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로서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정책목표 역시 신용사이클 회복을 위해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시중의 신용사이클 회복을 위해 일본식 방식을 참고할 수도 있고, 최근 ECB 방식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국은행이 생각하듯 총액대출한도 제도를 통한 것도 충분히 대책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금통위에서 정말 듣고 싶은 것은 금리인하도 동결에 대한 장황한 설명도 우리는 충분히 했다는 자기방어도 아니다. 그것은 **한국은행이 현재 시장이 우려하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행동에 나서겠다는 시그널**이다.

<해설도우미> 중앙은행의 독립성 = 소통의 강화?

2000년대 이후 중앙은행의 진화방향은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것은 중앙은행 내부의 정책결정과정을 합의제로 이끌어내고 의사록 공개와 FOMC멤버들의 개별적인 경제전망치를 발표하도록 한 미국의 벤 버냉키 의장의 노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린스펀이라는 절대적 신임을 받은 중앙은행 총재가 사라진 미국의 중앙은행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보다 견고한 씨앗을 뿌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정책금리라는 중앙은행의 정책수단이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Communication Strategy)을 포함할 수 밖에 없었던 역사적 배경과 궤를 같이 한다. 케인즈가 갈파한 기업가적 본능 (Animal Spirits)에서부터 경제활동에서 인간의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된 루카스 혁명 이후 중앙은행의 정책은 단순히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을 넘어 시장의 기대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진화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정책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이제 사실상 명목금리가 제로수준에 도달한 금융위기 이후 절대적인 위치를 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대한 독점적 권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시장과 중앙은행간 향후 경기와 금융시장 방향에 대한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다. 그리고, 그 위에서 중앙은행을 존중해주는 독립성의 문화가 꽃필 수 있고, 때로는 시장의 견해를 받아들여 중앙은행이 정책금리의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 독주나 독선이 아닌 상호소통이 정책금리 결정의 프로세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불행은 시장의 불행, 모두의 불행을 피하기 위해

자본주의의 꽃은 금융이다. 그리고, 그 금융과 가장 밀접한 정부기관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시중의 유동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최종 대부자 (Lender of last resort)로서 중앙은행이다. 따라서, 선진적 금융시장을 갖춘 국가는 대부분 선진화된 중앙은행을 자랑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중앙은행의 위치와 수준은 곧 그 나라의 국격과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앙은행과 시장의 불협화음은 심히 걱정스럽다. 중앙은행의 불행이 시장의 행복이 될 수 없고, 시장의 불행이 중앙은행의 행복이 될 수 없다.

우리의 중앙은행이 1990년 후반 장기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가는 일본경제에서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에 실패한 일본 중앙은행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아니면 국내 채권시장이 90년대 저축대부조합 사태 이후 경기회복 시그널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금리 하락 일변도로 일관하다가 그린스펀의 금리인상과 함께 버블이 붕괴되었던 미국의 채권시장 전철을 밟을 것인지는 현재 시점에서 알 수 없다. 다만, 어떤 경우든 결코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도움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불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번 금통위에서 시장과 중앙은행이 화해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참고로, 화해는 불확실성의 해소이며 주식시장은 불확실성 해소를 가장 큰 호재로 여긴다.

이남룡
nr.lee@samsung.com
02 2020 7035

양대용
daeyong.yang@samsung.com
02 2020 7705

삼성 TOP 10 포트폴리오

삼성 TOP 10 연간 수익률 (2013. 1. 2 ~ 5. 6)	삼성 추천 포트폴리오	KOSPI	초과 수익률
	+10.73%	−1.78%	+12.51%

종목	주가 (원)	투자포인트	편입일 (목표비중)	수익률
SBS (034120)	47,500	– 의무재송신 대상 확대 · 수신료 인상 가능성 등으로 반사익 기대 – 모든 유료방송사업자에게 재송신료를 받는 구조로 수익 개선 가시화	4/30 (10%)	(−5.0%)
스카이라이프 (053210)	41,600	– KT 인프라를 활용한 결합상품 판매로 가입자 성장세 지속 – 투자부담이 적어 플랫폼 사업자 중 가장 빠른 수익성 개선세	4/29 (10%)	(+4.0%)
LG (003550)	64,800	– 단기 급락으로 NAV대비 할인율 57% 수준으로 역사적 하단 영역 – LG전자 등 주요 자회사들의 본격적인 실적 개선 가시화 전망	4/25 (10%)	(−1.8%)
이마트 (139480)	213,000	– 정부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시 매출 턴어라운드 기대 – 현금창출능력 1.1조·자산가치 1.5조 現주가는 절대 저평가 상태	4/25 (10%)	(+3.4%)
현대차 (005380)	199,000	– 엔화 약세에 따른 수익성 악화는 주가에 충분히 반영 – 단기 낙폭과대로 현주가는 P/B 1배 수준의 절대적 저평가 영역	4/24 (10%)	(+8.2%)
KODEX 레버리지* (122630)	11,840	– 실적 시즌 이후 국내 증시는 글로벌 경기부양 기조에 힘입어 상승 전망 – 現 KOSPI 밸류에이션 P/E 8배 수준으로 가격 메리트 부각	4/22 (10%)	(+4.8%)
CJ제일제당 (097950)	309,500	– 주요 곡물가격 약세 전환으로 2분기 이후 투입원가 하락 기대 – 단기 낙폭과대로 현 주가 P/E 9.8배 수준 밸류에이션 메리트 보유	4/17 (10%)	(−4.5%)
LG전자 (066570)	85,300	– 옵티머스 시리즈 스마트폰 판매 증가에 따른 이익 개선 가시화 – 가전제품 신제품 효과와 에어컨 부문 계절적 성수기로 실적 호조 전망	4/9 (10%)	(+9.1%)
SK하이닉스 (000660)	28,900	– 1분기 실적 매출 · 영업이익 모두 예상치를 크게 상회 – PC D램의 추가적인 가격인상 여력 · 애플향 사업 수익성 개선	4/8 (10%)	(+1.2%)
삼성전자 (005930)	1,514,000	– 스마트폰이 실적을 견인하여 1분기 실적 어닝서프라이즈 달성 – 2분기 이후의 실적 추정치 지속적으로 상향되며 저평가 인식 확대	3/8 (10%)	(−0.4%)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 계열사 – 삼성전자 / ELW 발행 및 유동성 공급 – SK하이닉스, 현대차, LG

▶ 비중확대: 스카이라이프(053210) 5% → 10%, CJ제일제당(097950) 5% → 10%
▶ 비중축소: KODEX 레버리지(122630) 15% → 10%, 삼성전자(005930) 15% → 10%

홍승표
seoungpyo.hong@samsung.com
02 2020 7038

이병화
byunghwa79.lee@samsung.com
02 2020 7030

단기 유망 종목

종목	투자포인트	추천일 (수익률)
시그네틱스* (033170)	– 주요 고객사들의 메모리 사업 수익성 개선으로 단가 인하 압력 완화 기대 – 삼성전자의 화성 비메모리 전용 라인 투자 재개로 인한 중장기 성장성 부각 –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60% 증가한 300억 수준으로 실적 모멘텀 보유	5/2 (–0.2%)
동양기전* (013570)	– 중국 굴삭기 업체들의 생산량 증가 및 철도 사업 재개 시 유압기기 부문 실적 개선 기대 – 현대차그룹向 자동차 부품 매출 증가 및 산업기계 부문 해외 수출 증가로 성장성 부각 – 올해 예상 영업이익 640억원(YoY +28%) 기준 P/E 7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매력 보유	4/26 (–1.7%)
광동제약* (009290)	– 2분기 계절적 성수기 진입으로 신규 유통거래권을 확보한 삼다수 매출 증가 기대 – 비타500 · 옥수수 수염차 · 헛개수 등 다수의 메가 브랜드를 보유 하여 이익 안정성 보유 – 올해 예상 영업이익 420억 기준으로 영업이익 PER가 8배로 저평가 매력 부각	4/25 (+0.6%)
아이엠* (101390)	– 삼성전자 스마트폰용 AF카메라 모듈 사업 매출 실적 반영으로 올해 수익성 개선 기대 – 삼성向 VCM 물량 중 30% 공급이 전망되며 2분기 이후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전망 – 필리핀으로 생산시설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 생산수율 및 원가율 개선 효과 긍정적	4/24 (+3.0%)
현대EP* (089470)	– 현대차 그룹의 차량 경량화 정책으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매출 증가 기대감 부각 – 동부하이텍의 유화공장 설비 인수로 화학 소재 수직계열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 기대 –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350억 수준으로 현시총 기준 P/E 6배 수준의 저평가 메리트 보유	4/19 (+15.4%)
에이텍* (045660)	– 콜롬비아 · 러시아 등 교통카드 솔루션 부문의 해외 매출처 다변화로 성장 모멘텀 보유 – 공공기관 PC납품 및 IT 아웃소싱 사업의 대기업 시장 진입 제한으로 정책 수혜 기대 – 올해 예상 실적 기준 P/E 8배 수준으로 견조한 성장성 감안 시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4/5 (+28.9%)
한국사이버결제* (060250)	– 스마트기기 확산에 따른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로 성장 모멘텀 부각 – NFC 결제, 휴대폰 인증사업 등 신규 사업의 실적 가시화로 실적 개선 본격화 –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1,830억원, 영업이익 140억원으로 전년대비 큰 폭 성장 기대	3/4 (+16.2%)

참고: * 당사 비커버리지 종목

이임석
lslee7.lee @samsung.com
02 2020 7025

주가 주요 데이터

현재가	9,290원
52주 고가/저가	13,250/7,380원
시가총액	2,991억원
3개월 평균거래량	37.4만주
외국인지분율	3.63%
외국인지분율 변동(30일)	(2.12)%p

주가상승률(%)	1개월	3개월	12개월
	11.3	17.2	(26.9)

화광충천(火光衝天) 불이 하늘을 찌를 듯이 몹시 맹렬하게 일어남

심텍(036710)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1. 개요

심텍은 반도체 및 통신기기용 인쇄회로 기판 생산 및 판매(수출 포함)를 지배적 단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 모듈 PCB와 BOC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매출구성 Package Substrate 56.71%, Module PCB 41.09%, BIB 1.85%, Build-up 0.35%

2. 실적

동사의 2013년 1분기 영업(잠정)실적은 매출액 1,185억원(+25.1% YoY) 영업이익은 -76억원(적자전환 YoY)을 기록

3. 수급

최근 2개월 수급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 57.9만주/외국인 투자자 90.0만주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기관 투자자는 최근 1개월 17.6만주 순매수를 나타내는 등 최근 순매도 기관/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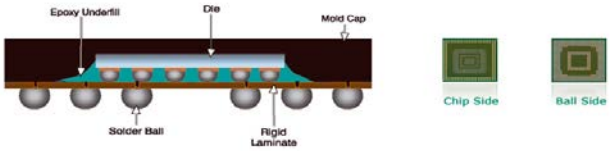
4. 체크포인트

동사는 전방시장의 계절적인 비수기와 2월 메모리 모듈 부문의 공장 화재 등의 악재로 인하여 시장 예상치보다 저조한 실적을 기록. 2분기부터 다시 회복기로 접어들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기대. 최근 계속되는 PC수요 부진 등으로 PC제품 매출의 강한 증가세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지만 더 이상 악화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화재가 발생했던 메모리 모듈 부문의 정상화와 계절적 비수기를 지나고 있는 모바일향 제품의 매출 증가로 인하여 2분기 이후 동사의 성장은 다시 이어질 것으로 전망

그림 1. 일봉 차트

자료: 삼성증권

그림 2. 신성장 동력인 FC-CSP(Flip Chip CSP)



자료: 심텍
참고:FC-CSP(Flip Chip CSP): 기존의 와이어본딩 대신에 칩의 본딩패드 위치와 동일하게 기판에 범핑패드를 만들어 플립칩 범핑으로 연결한 CSP

참고: 상기에서 제시한 종목은 매수추천 의미가 아닌 뉴스와 수급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시장 특징종목을 나열한 것입니다.

김기배
kibaehahu.kim@samsung.com
02 2020 7090

기업실적 발표일정

한국 주요 기업 실적발표 일정

회사명	잠정실적	Fnguide Consensus			영업(잠정) 실적		
(십억원)	발표예정일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LG유플러스	4월 29일	2,810.8	115.8	51.1	2,859.7	123.2	74.3
우리금융	4월 30일	-	470.8	262.3	7,307.3	356.4	263.6
S-Oil	4월 30일	8,600.9	368.6	259.5	8,013.7	326.9	147.2
기업은행	4월 30일	-	412.5	288.5	4,739.5	337.5	257.4
풍산	4월 30일	673.2	28.7	14.4	713.8	27.6	17.0
SK텔레콤	4월 30일	4,191.8	471.6	353.8	4,112.6	410.6	345.9
두산중공업	5월 2일	2,052.3	122.7	65.9	4,529.3	205.7	13.6
두산인프라코어	5월 2일	1,970.4	63.4	(27.8)	1,789.3	57.2	(77.0)
고려아연	5월 2일	1,335.7	179.7	142.9	1,172.3	172.6	127.8
CJ제일제당	5월 2일	2,575.2	155.3	85.7	2,448.4	125.2	46.8
한진해운	5월 2일	2,481.9	(56.6)	(87.2)	2,496.0	(59.9)	(34.7)
효성	5월 2일	2,996.0	55.0	3.0	2,913.3	96.0	(11.4)
BS금융지주	5월 3일	-	128.0	95.0	807.0	127.0	94.3
현대중공업	5월 3일	13,871.9	403.5	245.3	13,142.9	377.7	319.7
제일모직	5월 3일	1,572.5	79.4	64.5	1,523.0	72.1	67.4
SK네트웍스	5월 3일	6,489.0	54.9	8.0	6,427.9	25.0	(172.3)
대한항공	5월 3일	2,961.4	(68.9)	(211.5)	2,941.4	(123.4)	(300.6)
현대미포조선	5월 3일	1,014.1	9.7	16.1	907.9	(10.0)	15.3
동국제강	5월 6일	1,608.6	15.2	(41.3)	1,651.9	47.9	(49.0)
컴투스	5월 6일	24.5	5.4	6.7	24.9	5.1	8.6
코라오홀딩스	5월 6일	74.8	9.5	9.7	78.3	7.7	8.4
SKC	5월 7일	576.2	24.3	10.1			
아모레퍼시픽	5월 8일	805.1	151.9	115.1			
파라다이스	5월 8일	126.9	34.1	28.4			
롯데쇼핑	5월 9일	6,989.8	391.1	280.1			
NHN	5월 9일	692.2	194.0	151.4			
엔씨소프트	5월 10일	185.4	41.6	40.4			
GS리테일	5월 10일	1,147.0	15.2	13.6			
다음	5월 10일	127.5	25.4	21.7			

참고: 컨센서스는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결기준 1분기 실적으로 2013년 5월 6일 기준.
자료: Fnguide, 삼성증권

미국 주요 기업 실적발표 일정

(EPS, 달러)	잠정실적 발표예정일	발표치	예상치	전년동기	발표시간
Sprint Nextel	4월 24일	(0.21)	(0.30)	(0.29)	개장 전
Whirlpool	4월 24일	1.97	1.96	1.17	개장 전
Exxon Mobil	4월 25일	2.12	2.05	2.00	개장 전
Dow Chemical	4월 25일	0.69	0.62	0.61	개장 전
3M	4월 25일	1.61	1.65	1.59	개장 전
KKR	4월 25일	0.88	0.75	0.99	개장 전
UPS	4월 25일	1.04	1.02	1.00	개장 전
Amazon.com	4월 25일	0.18	0.08	0.28	폐장 후
Starbucks	4월 25일	0.48	0.48	0.40	폐장 후
Chevron	4월 26일	3.18	3.07	3.27	개장 전
Comcast	5월 1일	0.51	0.50	0.45	개장 전
Facebook	5월 1일	0.12	0.13	-	폐장 후
Viacom	5월 1일	0.96	0.95	0.98	개장 전
Mastercard	5월 1일	6.23	6.17	5.36	개장 전
Merck	5월 1일	0.85	0.79	0.99	개장 전
MetLife	5월 1일	1.48	1.31	1.37	폐장 후
Visa	5월 1일	1.92	1.81	1.60	폐장 후
General Motors	5월 2일	0.67	0.56	0.93	개장 전
Kellogg	5월 2일	0.99	1.02	1.00	개장 전
Lexington	5월 2일	0.25	0.25	0.00	개장 전
Kraft Foods	5월 2일	0.76	0.64	0.82	폐장 후
AIG	5월 2일	1.34	0.88	1.65	폐장 후
Berkshire Hathaway	5월 3일	2,302.0	1,995.34	1,615.0	폐장 후
Tesco	5월 6일		0.26	0.37	개장 전
Sysco	5월 6일		0.44	0.49	개장 전
Tyson Foods	5월 6일		0.45	0.44	개장 전
First Solar	5월 6일		0.75	(0.08)	폐장 후
Electronic Arts	5월 7일		0.57	0.17	폐장 후
Walt Disney	5월 7일		0.77	0.58	폐장 후
Whole Foods	5월 7일		0.73	0.64	폐장 후

참고: 현지시간 기준
자료: Briefing.com

이임석
lslee7.lee @samsung.com
02 2020 7025

수급 빅매치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Top-Pick

대우조선해양(A04266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기관 4일 연속 순매수

성광벤드(A014620)

외국인 6일 연속 순매수, 기관 4일 연속 순매수

기관 순매수 Top-Pick

KCC(A002380)

기관 3일 연속 순매수

게임빌(A063080)

기관 1일 연속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 Top-Pick

오리온(A001800)

외국인 2일 연속 순매수

차바이오앤(A085660)

외국인 1일 연속 순매수

참고: 상기에서 제시한 종목은 매수추천 의미가 아닌 뉴스와 수급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시장 특징종목을 나열한 것이며,
시간외대량매매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삼성전자우	194	1	SK하이닉스	366
삼성전기	111	2	하나금융지주	115
고려아연	96	3	한국전력	114
POSCO	66	4	LG전자	101
오리온	64	5	LG화학	99
현대제철	59	6	NHN	95
삼성엔지니어링	58	7	롯데케미칼	90
현대중공업	49	8	현대차	88
한진해운	49	9	BS금융지주	71
대우조선해양	47	10	SK이노베이션	69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파트론	72	1	셀트리온	72
차바이오앤	22	2	서울반도체	15
농우바이오	16	3	동서	15
마크로젠	14	4	크루셜텍	14
파라다이스	13	5	메디톡스	12
컴투스	13	6	KG모빌리언스	10
GS홈쇼핑	13	7	CJ E&M	8
유진테크	11	8	씨젠	8
다날	11	9	이엘케이	8
비아트론	11	10	휴맥스	7

기관 주요 매매 종목

유가증권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KODEX 레버리지	221	1	현대중공업	241
LG화학	195	2	삼성전자우	113
SK이노베이션	158	3	코스맥스	75
현대건설	99	4	한진해운	69
KCC	86	5	삼성전자	69
호텔신라	75	6	한국전력	66
삼성전기	70	7	현대차	59
하나금융지주	65	8	삼성중공업	56
대림산업	61	9	LG유플러스	52
기아차	59	10	한국가스공사	52

코스닥 시장

순매수	(억원)	순위	순매도	(억원)
게임빌	48	1	와이지엔터테인먼트	64
SK브로드밴드	31	2	컴투스	53
성광벤드	24	3	서울반도체	36
비아트론	17	4	CJ E&M	26
파라다이스	15	5	이엘케이	20
에스엠	14	6	덕산하이메탈	18
코나아이	13	7	매일유업	18
인터파크	12	8	비에이치	17
KH바텍	11	9	한글과컴퓨터	16
빅솔론	11	10	위메이드	16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기관/외국인 동시 순매수 주요종목

유가증권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대림산업	61	1	삼성전기	111
대우조선해양	57	2	현대제철	59
삼성물산	39	3	삼성엔지니어링	58

코스닥 시장

기관기준	(억원)	순위	외국인기준	(억원)
성광벤드	24	1	안랩	8
비아트론	17	2	다음	8
파라다이스	15	3	씨티씨바이오	7

참고: 상기 자료는 17:00시 기준 자료로서 시간외대량매매의 발생 및 장외지분 변동 시 일부 자료에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자료: Koscom

Research Headline

ECB 통화정책 update (Macro Update: 김지은)

ECB 정책금리 인하

- 5 월 통화정책회의에서 ECB 는 작년 7 월 이후 10 개월만에 정책금리를 25bp 인하. 최근 유로존 경기 위축이 가시화됨에 따라 ECB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예상되어오던 것. 4 월 유로존 물가가 타겟 레인지를 크게 하회하는 가운데, 경기 기대심리가 악화되고, 3 월 유로존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인 12.1%를 기록하며 하반기 중 유로존 경기 회복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는 것이 이번 결정의 배경. 예금금리는 현 수준인 0%에서 동결되었으나, 드라기 총재가 향후 필요에 따라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기존 스탠스에서 달라진 부분. 이 소식 이후 유로화는 장중 1.3036 달러까지 하락

Tech, 인터넷, 미디어 (Sector Update: 박재석)

Smart paradigm, uncommon insight

- 2007 년 아이폰 이후 스마트폰의 대중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고, IT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산업 변화에 대한 재조명 필요. 스마트폰 대중화는 하드웨어 혁신과 신흥시장의 양적 성장에 힘입어 향후 2~3 년 동안 국내 IT 하드웨어 업체의 지배력이 돋보일 것임. 반면 통신업체는 LTEA 등의 기술 진화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데는 한계. 스마트폰 대중화의 지속된 수혜업종은 인터넷/소프트웨어 산업이나 글로벌 시장 진출 성공이 관건. 스마트폰 대중화의 수혜주로 하드웨어 업체 가운데선 삼성전자, LG 전자, 솔브레인, MDS 테크를 투자 유망종목으로 추천하며, 이외에 소프트웨어 및 컨텐츠 업체인 NHN 과 SBS 를 추천함.

LG전자 (Company Update: 조성은)

주가 하락과 투자 전략

- 지난주 G Pro 판매 부진 우려감으로 단기 조정. 여기에 해외 경쟁사들의 전략 모델 기대감, 더딘 TV 마진 개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연초 이후 15%의 주가 상승도 차익 시현을 자극. 스마트폰 물량 증가에 따른 본격 영업 레버리지 효과와 속도의 문제일 뿐 가전과 TV 수익 개선은 이제 시작. 하드웨어 범용화 추세에서 LG 전자의 경쟁력은 단연 돋보일 것이며, 동사의 펀더멘탈 개선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번 조정 원인을 노이즈로 봄.

투자의견 BUY, 목표주가 130,000원

- 옵티머스 시리즈(G, G Pro)와 넥서스 4, 보급형 L 시리즈의 sell out 상황은 양호하며, 특히 주가 하락을 자극했던 옵티머스 G Pro 에 대한 재고우려는 내수 시장에서 여전히 일일 개통 5,000 대 수준으로 추산되어 기대치에 부합. HTC, 소니, 블랙베리의 전략 모델 판매량 호조로 long(해외 경쟁사)/short(LG 전자) 전략이 전개될 수 있지만, 결국 스마트폰 물량과 실적 격차로 나타날 LG 전자의 펀더멘탈 개선에 편승한 주가 상승 전망은 변함없음

참고: 'Research Headline'은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공표된 자료를 단순 요약 정리한 코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 리서치센터 발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배
kibaehahu.kim@samsung.com
02 2020 70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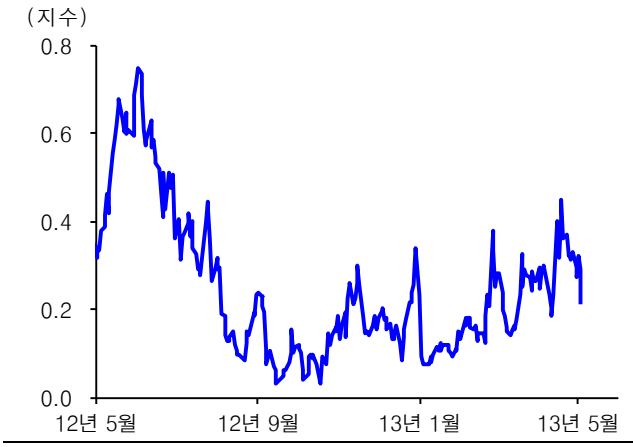
Market Indicators

美 고용 서프라이즈, 뉴욕 증시 최고치 기록

- 미국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는 16.5만 명 증가하여 시장 예상치 14만명을 상회. 이에 위험자산 선호도가 강화되며 글로벌 증시 및 상품가격은 상승하는 모습
- 미국 고용지표 개선으로 안전자산 선호도는 약화되었지만 금 가격 약세는 제한적. 이는 금 1위 소비국 인도에서 결혼시즌을 앞두고 금 수입이 급증하였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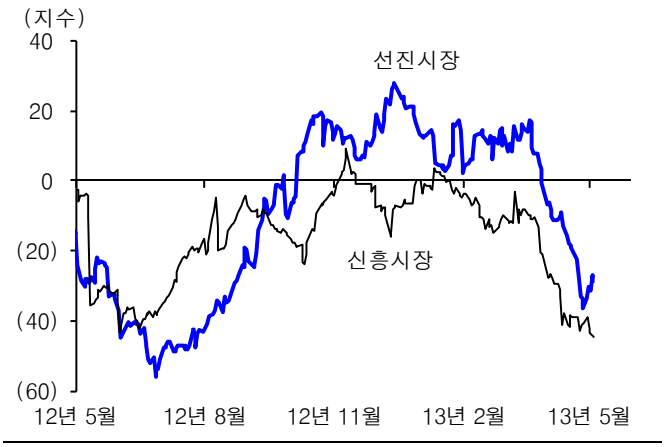
Macro Indicator

시티 매크로 리스크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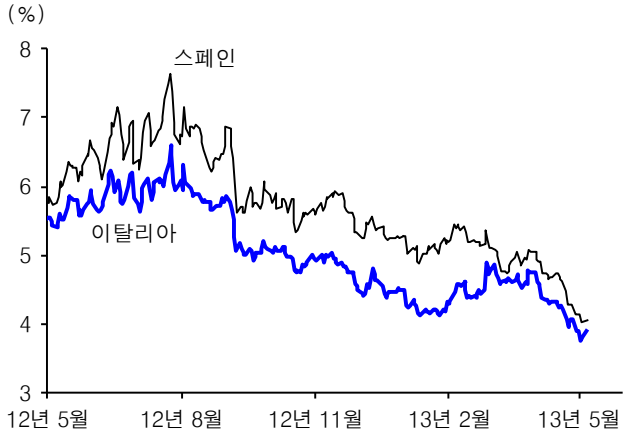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시티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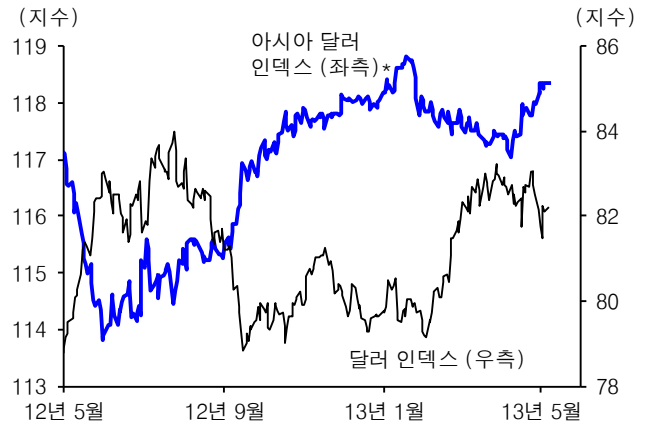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남유럽 주요국 국채 수익률 추이



참조: 10년물 기준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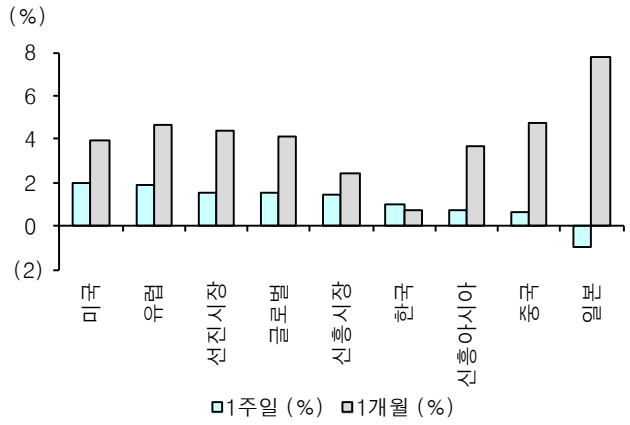
달러 인덱스와 아시아 달러 인덱스 추이



참조: * 미국 달러화에 대한 아시아 10개국 통화 가치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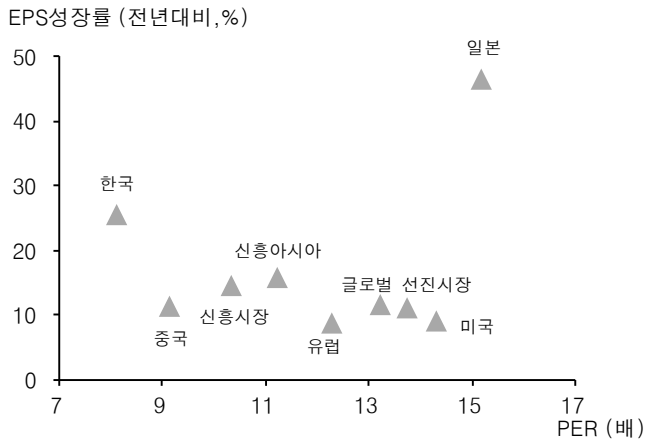
글로벌 증시 동향

MSCI 지역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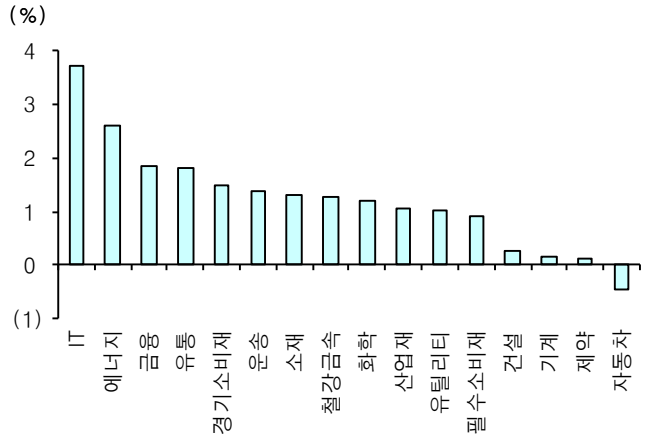
참고: 4월 26일 ~ 5월 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지역별 12개월 예상 PER 및 EPS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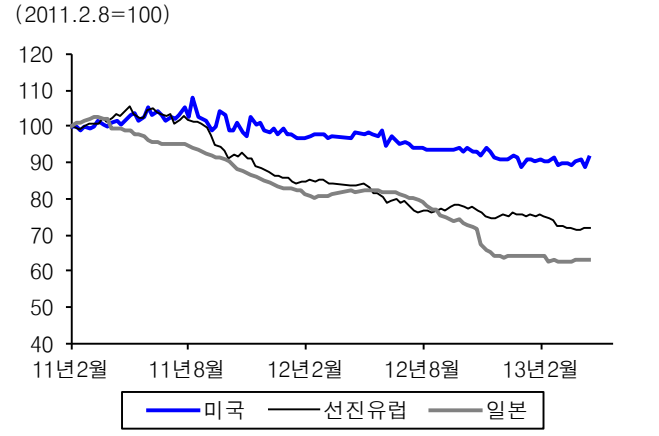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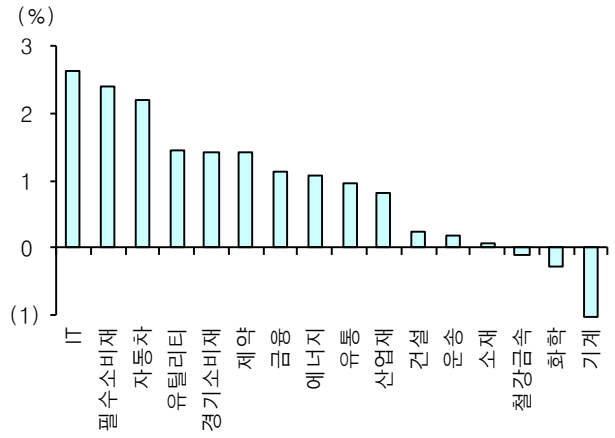
참고: 4월 26일 ~ 5월 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선진시장 주요 국가별 2013년 예상 EPS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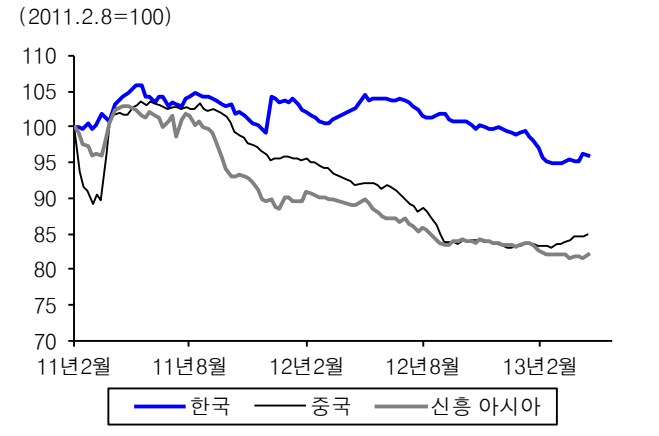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MSCI 신흥시장 섹터별 주간 증시 성과



참고: 4월 26일 ~ 5월 3일 기준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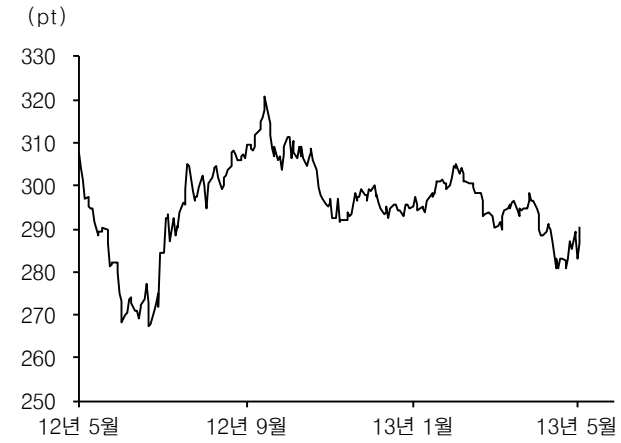
MSCI 신흥시장 주요 국가별 2013년 예상 EPS 추이



자료: Thomson Reut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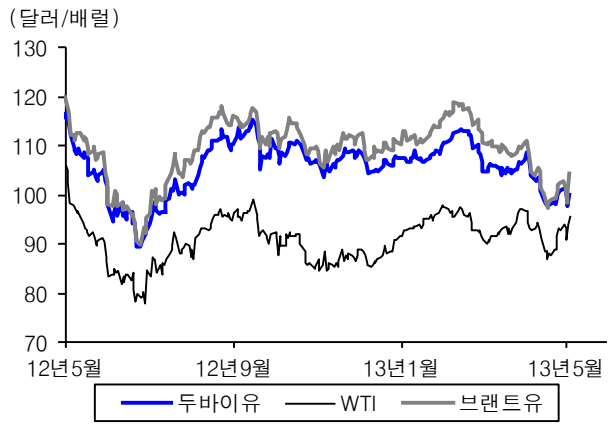
상품 및 산업 Indicators

TR/Jefferies CRB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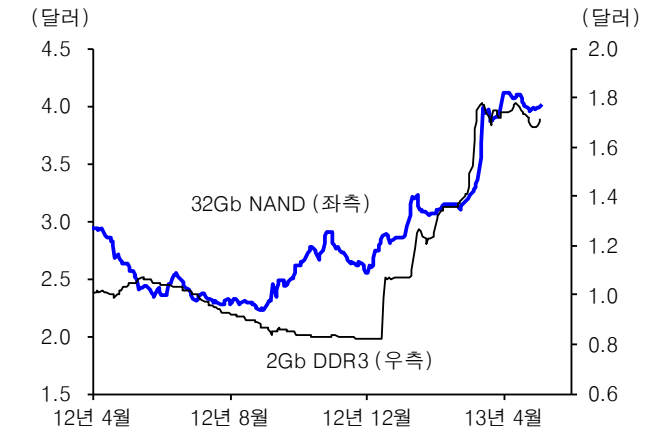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주: CRB(농산물+에너지+비철금속)

국제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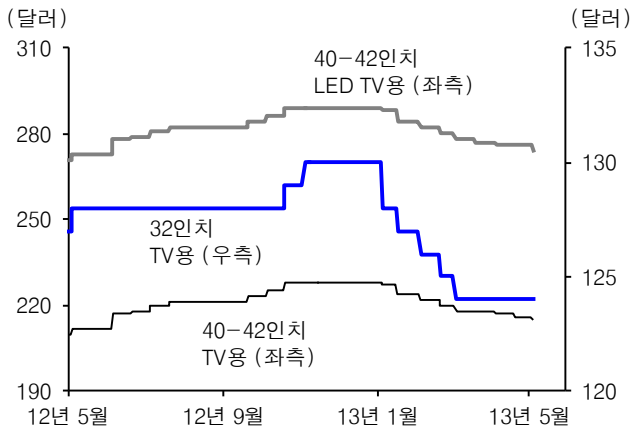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DRAM & NAND 현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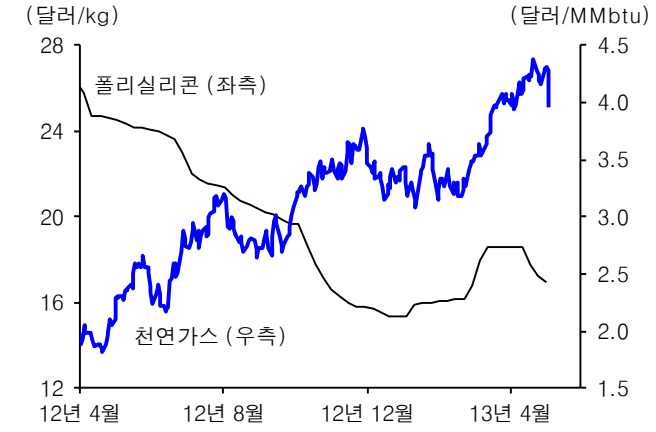
자료: DRAMeXchange

LCD패널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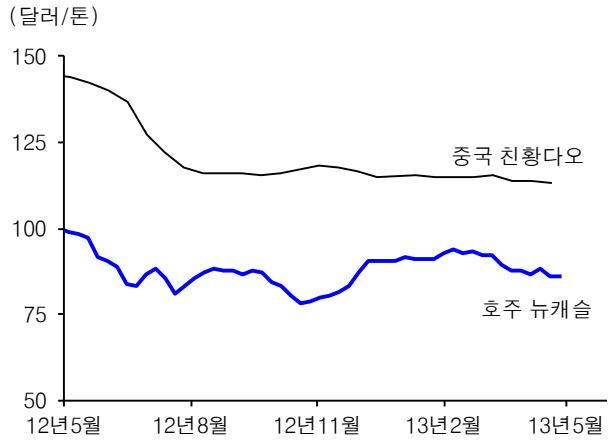
자료: DisplaySearch

폴리실리콘 & 천연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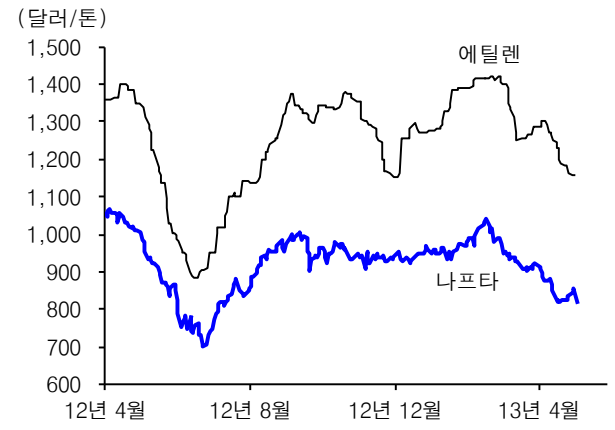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PVinsights

석탄가격



자료: Bloomberg

화학제품 가격



자료: Bloomberg, Plat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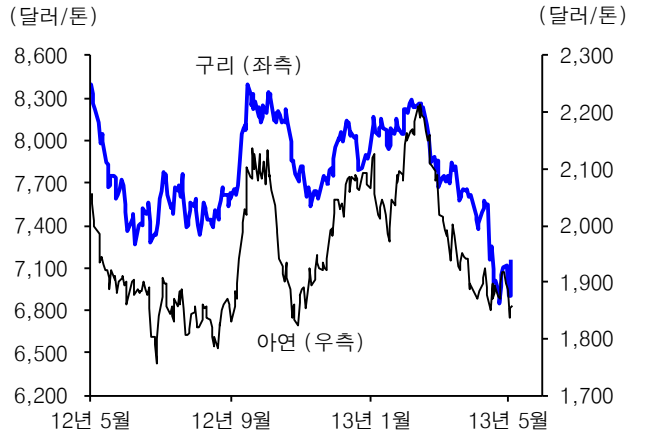
부타디엔 & 천연고무

자료: Bloomberg, Platts

철강 유통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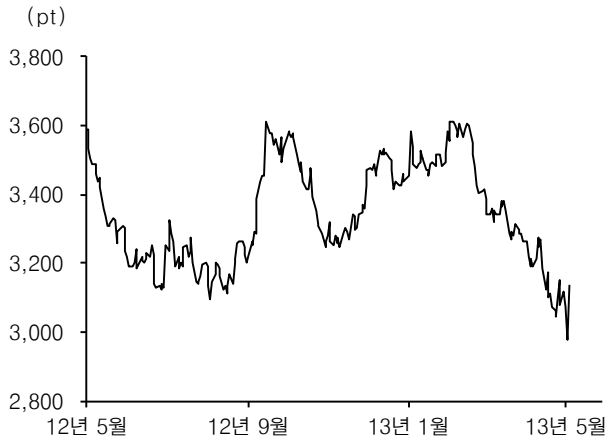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비철금속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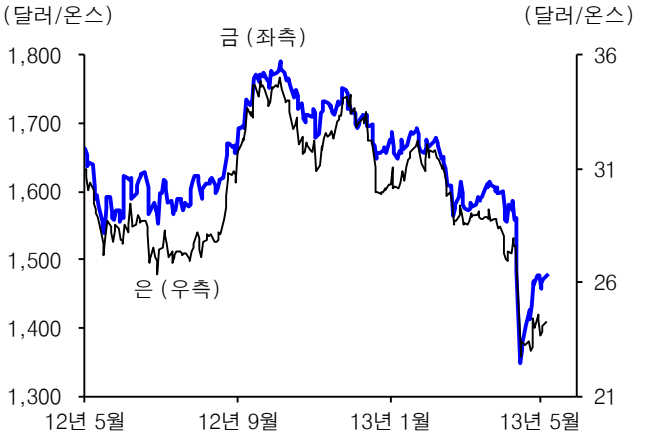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ME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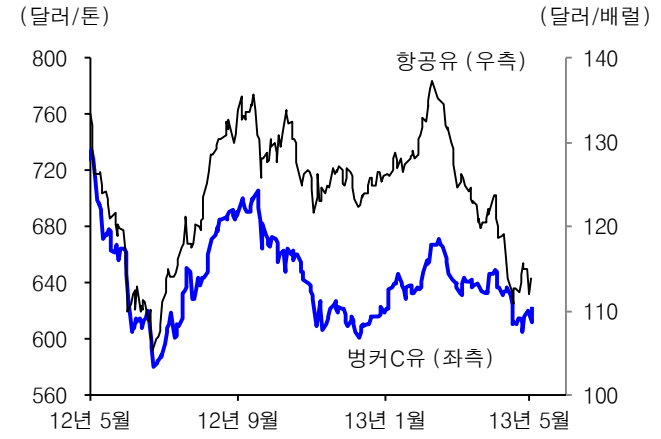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귀금속 가격



자료: Bloomberg

항공유 & 벙커C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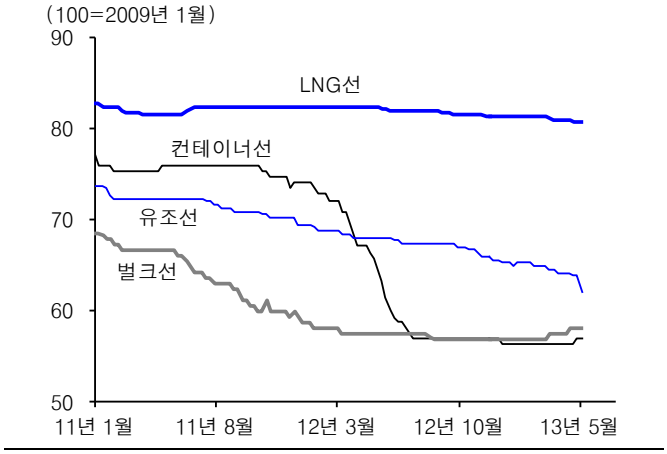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싱가포르 크랙 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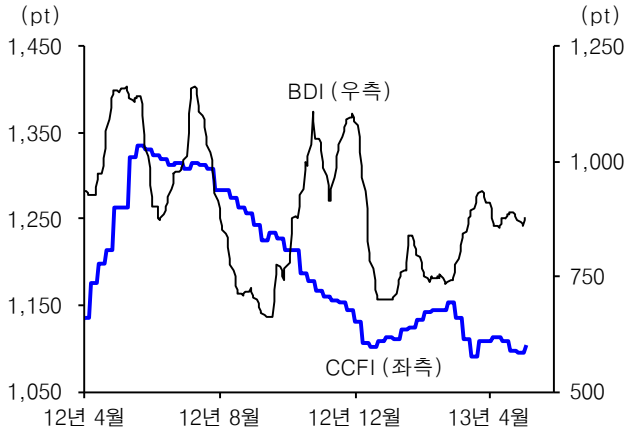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신조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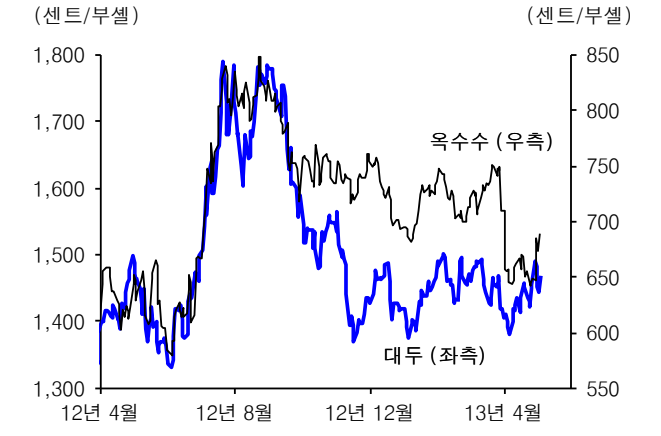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해상운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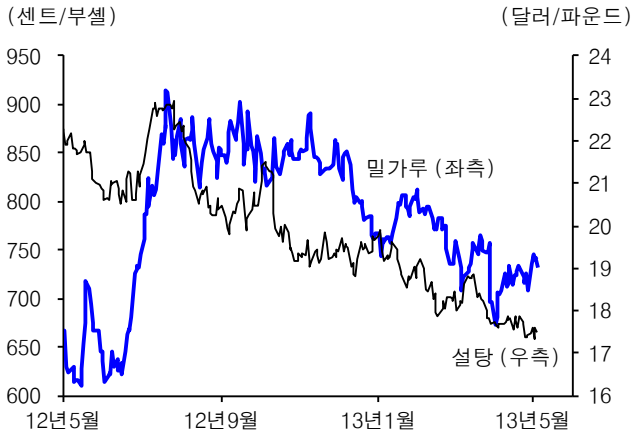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항운교역소, Thomson Reuters

대두 & 옥수수



자료: Thomson Reuters

밀 & 설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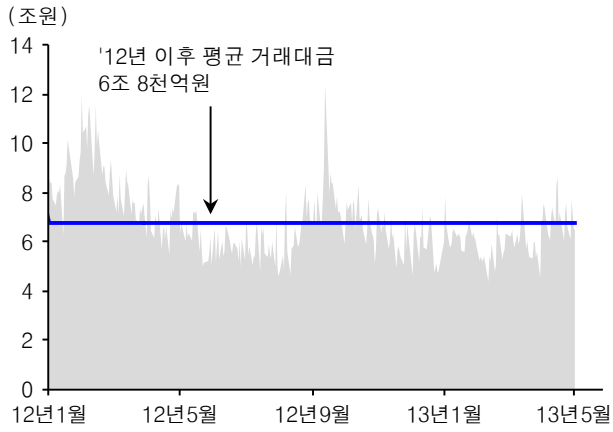


자료: Thomson Reuters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KOSPI & KOSDAQ 거래대금



자료: KRX

임은혜
e0124.lim@samsung.com
02 2020 7027

증시 캘린더

MON	TUE	WED	THU	FRI
6	7	8	9	10
*** 증시 휴장** **- 영국, 일본 등**		(미국) 주간MBA주택융자신청지수(천건) (4월5주 -/E -/P 1.8%) (중국) 4월 무역수지(십억달러) (4월 -/E 15.8/P -0.88) 4월 수출(전년대비) (4월 -/E 9.2%/P 10.0%) 4월 수입(전년대비) (4월 -/E 13.0%/P 14.1%)	(미국)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천건) (4월5주 -/E 335/P 324) 3월 도매재고지수 (3월 -/E -0.4%P -0.3%) (중국) 4월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4월 -/E 2.3%/P 2.1%) 4월 생산자물가지수(전년대비) (4월 -/E -2.3%/P -1.9%) (한국) **5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5월 -/E 2.75%/P 2.75%) 5월 옵션만기일	(미국) 4월 월간재정수지(십억달러) (4월 -/E 106.0/P -) (중국) 4월 M2 통화공급(전년대비) (4월 -/E 15.5%/P 15.7%) (한국) 4월 수출물가지수(전년대비) (4월 -/E -/P -5.9%) 4월 수입물가지수(전년대비) (4월 -/E -/P -10.8%)
13	14	15	16	17
美 4월 소매판매액지수 中 4월 산업생산 4월 소매판매 4월 고정자산투자지방제외	美 4월 수출 · 수입 물가지수 유 4월 ZEW조사치 유로 재무장관 회담 5월 산업생산	美 5월 뉴욕주제조업지수 4월 생산자물가지수 3월 산업생산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韓 4월 실업률 유 1분기 유로권GDP	美 4월 소비자물가지수 4월 주택착공건수 4월 소비자물가지수 5월 필라델피아연준지수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韓 4월 생산자물가지수	美 5월 미시건대소비심리평가지수 4월 경기선행지수 **부채한도증액 연장기한(19일)** *** 증시 휴장 - 한국, 홍콩 등**
20	21	22	23	24
		美 4월 기존주택매매 FOMC 의사록 공개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日 일본은행 정책금융회의 유 유로정상회담	美 3월 주택가격지수 4월 신규주택매매 주간 신규 실업수당청구건수 中 5월 HSBC플래시제조업PMI 유 4월 PMI 제조업	美 4월 내구재주문

자료) Bloomberg
참고) 韓: 한국, 美: 미국, 유: 유로존, 中: 중국, 日: 일본, 독: 독일, 영: 영국 / 현지시간 기준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투자정보팀이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250번지 삼성본관빌딩 14층 투자정보팀 02-2020-8000